

미술표현활동의 지역화 수업 사례 연구*

- 제주지역설화를 중심으로 -

허 은 경**·오 재 환***

|| 요약 ||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강조하고 있는 현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그 가치가 훌륭한 제주지역 설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미술과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표현활동 단원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재구성한 내용을 가지고 도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12차시 분량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의 내용으로는 제주지역설화를 활용하여 '이야기 내용을 상상하여 그림책으로 표현하기', '전통 옷·장신구 만들기', '제주 전통 가옥 환경 꾸미기'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제주지역설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제주전통문화를 사랑하고 보존하려는 마음을 갖는다. 둘째, '제주지역설화'라는 학생들에게 친근한 '이야기' 소재를 활용한 미술수업을 통하여 다양하고 심도 있는 미술표현활동을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셋째, 3학년 교육과정에 맞는 표현활동으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기본적인 재료와 용구,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학생들이 모둠별로 협력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수업을 재구성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책임 의식을 기르고, 친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협동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주제어: 제주지역설화, 미술표현활동, 교육과정 재구성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새서귀초등학교 교사

*** 본 학회 회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미술교육전공 교수(교신저자)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미술교육은 미적 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삶을 창의적으로 향유하며 미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미술 표현활동에서는 미술에 기본적인 지식 및 흥미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소통하는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삼고 지도해야 한다.

또한 미술 교과는 학습 내용의 특성상 생활적·문화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므로 학생들은 미술 수업을 통해 그들이 속한 생활적·문화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학생 자신과의 심리적·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대상이 표현활동에서의 주제 또는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학생 주변에 분포한 문화적 요소가 담긴 소재 중에서 제주 지역 설화는 제주 지역의 풍토적·역사적 상황 속에서 독특하게 형성되어 왔으며 현재도 그 생명력은 계속되고 구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또한 설화는 교육적으로 문학적 상상력과 내용이 풍부한 특성을 지니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문제 해결력,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바르고 효율적인 사고, 독창적인 사고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희주, 2003: 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올 해 초 제주 설화 5편(대별이 소별이, 설문대할망, 삼성신화, 삼승할망, 김녕사굴)을 교육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각 급 학교에 보급하여 제주 지역 설화에 대한 이해와 제주어 보존, 제주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이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제주 지역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애니메이션의 기본 출발점이 되는 미술의 표현 영역 측면에서도 흥미와 상상력을 북돋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제주문화예술평단(2010)은 『제주설화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발간함으로써, 제주설화를 활용하여 미술교육 및 음악교육 활동을 학교 급별로 재구성하고, 이를 수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특히 미술교육영역에서는 학교 급별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설화 제시 및 미술 체험, 표현, 감상활동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지역설화와 미술교육과의 연계 교육활동을 배경으로 한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의 미술 표현 능력 향상과 제주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제주 도민이라는 자긍심 증진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아 제주지역 전통설화를 소재로 한 미술표현활동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 및 실행하였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것이다.

첫째, 제주 설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고찰한다.

둘째, 미술과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3학년 아동의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제주 지역 설화와 미술과 표현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흥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 설문 및 실태 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사전 설문 및 실태 분석 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 지역 설화를 소재로 한 미술과 교육과정 표현활동을 재구성한다. 이에 따른 미술 표현활동으로 '이야기 내용을 상상하여 그림책으로 표현하기', '전통 옷·장신구 만들기', '제주 전통 가옥 환경 꾸미기'를 총 12차시 분량의 수업 활동으로 실시한다.

다섯째, 미술 표현활동 후 아동의 작품과 사후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의 결과 및 효과성을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설화의 이해

가. 설화

설화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민족적 집단의 공동생활에서 비롯된 공동 의식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구전문학으로, 일정한 구조를 가지면서 꾸며낸 이야기이다. 설화에는 민족의 역사, 신앙, 관습, 세계관 및 꿈과 낭만, 웃음과 재치가 있고, 생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나 역경을 이겨내는 용기와 슬기가 문학적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 또한 설화는 일상의 신변잡담(身邊雜談)이나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이야기이므로, 설화 중에 사실을 가장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 아니다. 즉, 설화는 사실적인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다(장덕순 외, 1971: 15).

설화는 역사와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입에서 귀로 전해져 왔으며 현재에도 전승, 전파되고 있다. 13세기 『삼국유사』(三國遺事) 이래 그 밖의 소화집(笑話集)의 형태로 과

거의 이야기들이 문헌으로 정착되기도 했다. 구전문학(口傳文學)은 그것이 문헌에 정착되어 있건 현재 전승되어 있건 작품 안에는 전승시켜온 집단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집단의식이 작품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작품의 흥미, 즉 재미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완벽하게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융화되어 있다. 그리고 구전문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전승되고 구연되는 현장에서 생명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전승의 일차적인 요소는 흥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연현장에 참여한 구연자나 제보자는 단순한 참여자, 고정된 배역에 안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역할 교환에 의해서 이야기판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비판자가 되기도 한다. 결국 구전 작품에는 전승자의 전승의식으로서 표면적인 흥미소(興味素)와 내면적인 의식세계의 반영으로 양분하여 볼 수 있다(박현국, 1995: 7).

모봉구(2006)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설화들은 구전(口傳)이라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성을 탈피하고자 각국의 시조신들, 산과 강, 마을의 이름, 특별한 지형지물, 유명한 왕과 장수, 영웅 등과 연계했음을 설명하였다. 또 이밖에도 설화는 근친상간과 같은 터부와 생로병사의 물리적 법칙을 거스르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사람들의 기억과 관심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왔다. 설화 속에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유머,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상징이라는 단단한 껍질 속에 들어 있으며,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통찰하고 이해하며 어떻게 삶의 여정을 밝아나가야 하는 지를 은유와 상징으로서 전하고 있다.

공시적(公示的)인 측면에서 볼 때,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신화는 태초에 있어서 우주, 인류, 문화의 기원이나 신들, 초자연적인 존재 및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그래서 신화는 그것이 처음 만들어졌던 당대인들의 생활에 본질적인 기초를 두고, 진실한 사건으로서 항상 언급되어지고, 전래의 모습으로 재연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전설은 역사시대에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주임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이다. 마지막으로 민담은 몇 회에 걸쳐서 반영되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오락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박현국, 1995: 7).

이러한 설화의 구분 양상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신화 · 전설 · 민담의 차이점

항목	신화	전설	민담
전승자의 태도	신성성을 의식	진실성을 의식	신성성이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음.
시간과 장소	태초의 신성한 장소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	뚜렷한 시간 및 장소 부재
증거물	매우 포괄적 증거물	특정의 개별적 증거	증거물이 대부분 부재
주인공	신 중심	인간 중심	일상적인 인간
주인공의 행위	신적 능력 발휘	예기치 않은 사태에 좌절	인간적인 행동
전승의 범위	민족적인 범위	지역적 범위	지역과 무관
기능면	신앙심의 요청	지역주민의 유대감 형성	흥미 본위

(김범재, 2004: 10).

나. 구전동화

구전동화는 문자 그대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며, 설화의 형태적 특성을 보존하면서 발전했으나 신화, 전설, 민담 등 설화의 다른 형태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구전 동화를 다른 일반 설화와 구별하는 가장 본질적 특성은 그것이 아이들의 생활과 심리적 특성에 맞는 이야기라는 데 있다. 구전동화는 아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는 환상과 의인화를 주된 수법으로 하여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 고운 것을 긍정하고 지향하도록 이끌어 준다. 우리나라 설화에서 동화적 형상이 풍부한 것으로서 그 연원이 가장 오랜 작품은 〈방이 설화〉이다. 이 설화에는 형제간의 의리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 잘 사는 자를 악한 자로 저주하고 증오하는 국민들의 사상과 감정이 구현되어 있다. 또한 이 설화에는 동화적 계기의 진실성과 동화적 구성의 명료성으로 하여 동화 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졌다(김윤호, 2000: 238-242).

이러한 구전동화들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문헌으로 정리된 것을 전래동화라고 말할 수 있다. 전승 이야기는 본래 대부분이 성인을 위한 것이었으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을 분류하여 전래 동화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래동화는 전승되어 오던 이야기를 어린이의 발달 단계와 사회·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고쳐 쓴, 즉 개작 동화가 대부분이다. 전래동화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 이야기 되고 들려지며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 즐거움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둘째, 산문 형식을 띠고 있다. 셋째, 동화가 발생한 당시 그 지역 민족의 생활과 이상, 관습, 종교, 미래를 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넷째, 소박한 도덕적 윤리적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문장 또는 단어의 반복이 있어 읊조리기에 좋다. 또한, 옛이야기의 문학적 가치로 주의를 끄는 시작, 극적인 움직임, 서스펜스, 극적인 클라이맥스, 종료된 맺음말, 이야기의 단순함, 유머러스함, 리듬이 있는 문체에 있다. 그러므로 전래 동화의 문학적 가치 여부는 이야기의 구성, 극적인 요소, 일관된 논조, 성격 묘사, 테마의 명확성, 강한 움직임, 효과적인 회화 등의 조건을 갖추었느냐에 따라 논의된다(강문화·이혜상, 2008: 128-133).

다. 교육적 의의

1) 설화 교육의 의의

설화는 옛이야기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여전히 생명력을 지닌 이야기로 들려지고 읽혀지기 때문에 현재진행형이며 교육적으로 그 의의가 있다(신헌재 외, 2007: 185). 설화의 교육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최운식, 2002: 36-37).

- ① 설화는 상상력의 소산이므로 설화의 청자나 독자는 이를 통하여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상상력은 현실로부터의 해방을 맛보게 해주고, 보상적 만족을 주며,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고 능력인데, 설화를 통해 이를 기를 수 있다.
- ② 설화는 말로 표현된 것이므로 청자나 독자는 이를 통하여 언어능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설화는 구연을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말하기, 듣기 능력 신장에 중요한 몫을 한다.
- ③ 설화 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겪어 온 삶의 다양한 체험, 사상, 감정, 지혜, 용기, 가치관 등이 용해되어 있다. 그러므로 설화의 청자나 독자는 이를 통하여 문학적 체험을 풍부히 함은 물론 한국인다운 삶의 여러 가지 방식을 배우며, 한국적 정서와 가치관을 함양하고 심화시켜 나갈 수 있다.
- ④ 설화는 청자나 독자들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켜 즐거움을 주면서, 동시에 교훈을 준다. 그러므로 설화의 청자나 독자는 이를 통하여 즐거움과 함께 충·효·우애 등의 윤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인생이 무엇이며,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된다. 특히, 설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인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쟁취한다. 설화의 이러한 구성은 어린이들에게 고난 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준다.

- ⑤ 설화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풍속·습관·생활·사상·신앙 등이 녹아 있고, 우리 조상들의 깨끗한 힘과 슬기·빛나는 지혜·소박한 꿈 등이 용해되어 있으므로, 설화의 청자나 독자는 이를 통하여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⑥ 설화는 구연을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연은 화자와 청자의 대면이 필수적이다. 설화의 이러한 전달과정에서 인간관계를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심화시켜 나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설화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문학 교재로서의 알맞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매 교육과정 기에서 교재 화하여 교과서에 수록되고 있다(문해란, 2005: 5).

설화는 문화유산으로서 인간 사유의 원형질을 담고 있으며, 삶의 오랜 체험에서 얻어진 다양한 인식내용이 일정한 틀 속에서 형상화 되어 삶의 양식과 실체를 보여준다. 또한 전통사회에서 설화는 교육적 기능과 오락적 기능을 동시에 가졌으며, 오늘날 학교교육에서 설화제재를 통한 문학교육과 도덕교육의 가능성도 따지고 보면 설화가 지니는 근본적인 속성인 교육성과 문학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에서 설화의 교육적 효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즉 설화를 설화답게 즐기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에 관한 탐색은 설화의 본질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신정순, 2002: 1-2).

한편, 최미(2005)는 설화가 아동들의 창의성 측면에서 하위 변인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래동화의 삽화를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창의적 표현력 신장방안을 연구하였다. 예를 들어 설화의 줄거리 중 기억에 남는 장면을 재구성하여 표현함으로써 창의적인 면이 신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문학작품을 통한 시각 예술 활동의 의의

어린이는 천성적으로 문학 작품을 들은 후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를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하고 싶어 한다. 시각 예술 활동(visual art strategy)은 미술적인 방법을 의미하며, 이는 창조적인 작업으로 어린이의 문학 활동과 매우 상호 보완적이다. 문학작품을 통한 시각 예술 활동의 예로는 ‘그림책 만들기, 사진 책 또는 큰 책 만들기, 동요 동시 들고 그림 그리기, 삽화 관찰, 실물 제시, 삽화·벽화 그리기, 책갈피 만들기, 인형 만들기, 무대·의상·소품 만들기, 포스터 만들기’ 등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강문화·이혜상, 2008: 376-391).

- ① 창조적인 미술 활동을 통해 문학을 감상함으로써 어린이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법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어린이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면서 색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문학적 기술과 이해력을 기를 수 있다.
- ② 문학 작품과 관련하여 미술 활동을 하는 동안 어린이는 그들의 문학적 체험에 대해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또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게 솔직하며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미술적인 활동은 동시나 이야기에 새로운 맛을 부가해준다. 어린이는 인형극이나 무대를 구성해 봄으로써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의 등장인물이나 구성, 배경, 주제 등을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 ④ 어린이는 미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협동하고 사회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룹 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하고, 그룹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며, 그룹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적 활동을 통해 어린이는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생활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2. 제주 설화의 이해

지역 설화는 지역의 특수성 이외에도 오랜 세월 간 민족적 집단의 공동생활 속에서 형성된 공동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의 보편성 또한 지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 설화의 민족의 보편성이란 민족의 역사·신앙·관습·세계관 및 꿈과 낭만·웃음과 재치, 또는 생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나 역경을 이겨내는 슬기와 용기 등이 문학적으로 형상화 된 것을 뜻한다(정애란, 2009: 54).

제주는 하나의 민족 집단도 정치적 공동체도 아니지만 본토(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리적, 역사적으로 문화적 차이가 있는 독자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주의 풍토성과 역사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제주의 설화들은 본토와 공통된 특성을 가지면서도 제주만의 특유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특히 제주 설화에는 제주 도민의 영위된 습속이나 신앙, 또는 향토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김열규 외, 1982: 3).

제주설화의 성격을 신화, 전설, 민담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신화에는 문헌신화로 대표되는 삼성혈신화, 구전신화로 본풀이라고 불리는 무속신화가 있다. 삼성혈신화는 고려사계통과 영주지 계통으로 나누어 후세에게 문헌으로 전해지며, 본풀이는 심방이 굿을 할 때 제상 앞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의례의 한 형식으로 그 내용은 신의 내력담이다. 이들 제주 신화는 공통점으로 인간의 삶과 친밀한 특징을 가지며 주인공은 출생·성장·고행·결연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끝에 가서는 신으로서의 직능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차세의 직능신이나 마을의 당신으로서의 신격이 주어지는 것이다(현용준, 1996: 9-11; 김경애, 2013: 42-43).

제주 신화는 제주에서 보유했던 집단과 지역의 고유함이나 신화의 본질적인 의의를 잘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제주 신화들은 굿이라는 의식 속에 구승되면서 전래된 것들이어서, 개인적인 기호에 의하여 또는 문학적인 요소들에 의해 덧붙여지거나 변형·삭제되었던 그리스 신화와는 다르게, 마음대로 변화될 수 없는 집단적인 창작 전승물들이다. 이로써 제주 신화는 현실과 밀착된 신화라는 점에서, 또 개인의 의지나 기호 또는 어떤 필요에 의해 함부로 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와 집단을 반영하는 정직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도 한다(김정숙, 2002: 21).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민중이 이야기하는 전설도 특이한 자연이나 역사적인 특수한 인물이나 사건, 또는 신앙·관습 등의 유래를 설명하는 이야기다. 일반 민중이 언제 어디서나 사실이라고 믿어 이야기하고, 또한 듣는 이도 그렇게 믿어서 듣는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태초적인 사실의 설명인 것도 있고, 그다지 오래지 않은 과거 사실의 설명인 것도 있다. 그 시간적 조건에는 관계없이, 이야기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증거물을 대면서 설명하는 이야기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제주의 전설은 자연전설·역사전설·신앙전설이 골고루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는데, 자연전설에는 동굴·암석·연못에 대한 것들이 많고, 역사전설에는 관원·이인·장사·여걸 등에 대한 전설에 특이한 것이 발견된다(현용준, 1996: 265-267).

셋째, 제주의 민담은 제주의 자연적 환경, 역사적 배경, 생활양식 등과 어우러져 만들어졌으므로 본토의 것들과는 상이한 모습을 지닌다.

이러한 제주 설화에는 제주인의 생활상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어 제주 설화 교육은 제주인의 독특한 삶의 지혜를 계승·발전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주 설화를 학습 자료로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흥미와 동

기유발을 통한 학습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현용준, 1996: 9-11; 김경애, 2013: 42-43).

제주특별자치도 전래동화를 연구한 박재형(1998)은 “전래동화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설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하여 제주지역 설화자료 수집 시 제주의 전래동화 중에서 그 내용을 활용하였다. 다음의 <표 2>와 <표 3>은 제주 지역 전래동화(설화)를 신화, 전설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표 2> 신화를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

구분	제주 전래동화	빈도
개벽신화	이 세상과 소별왕	1
시조신화	삼성신화	1
일반신 본풀이	삼승할망, 무당의 조상이야기, 사만이 , 자청비 , 가문장아기 , 남선비	6
당신화	한라산 신이 된 소국성, 세화분향당신, 호근본향당신, 사계큰물당신, 예촌·보목본향당신, 사계큰물본향당신, 상창 하르방당신, 중문본향당신, 광양당신, 영등할망, 보목리조록이당	11

(박재형, 1998: 11).

표에서 기울임으로 표시된 것은 본 연구에서 사전설문에 제시된 제주지역설화이며, 진하게 표시된 것은 본 연구자가 최종 연구에서 활용하는 제주지역설화이다.

<표 3> 전설을 수용한 전래동화 주제 분류

주제	전설	작품수	비율(%)
생성유래 · 이유	오백장군 , 비양도, 소죽은 못, 가릿뱅디, 군산에 얹힌 이야기, 외돌괴와 범섬, 이여도 , 관덕정, 늘우시 동산, 파랑도, 백록담과 산방산, 진나라 서벌과 정방폭포, 열녀바위, 애기엿개 바위, 용궁의 세 왕자와 매오름, 용머리 바위, 용두암, 지장샘, 바당에서 건진 돌하르방, 장수 무덤, 아기엿개, 괴이리가 한동리가 된 까닭, 고종달이, 돌하르방, 산방덕이, 해녀와 신하	26	23.9
장수· 기인의 좌절	배 큰 정서방, 오찰방, 아기장수의 죽음, 날개돋은 아기의 죽음, 김통정 장군, 장수가 못된 장사, 설문대할망 , 대정고을 장사들, 힘센 종막산이, 계참 박규안	11	10.1

장수의 업적	해적을 무찌른 장사 한씨, 홍리 고대각, 논하니, 장사 구운문, 고삭불 장사, 의로운 당콧당장	7	6.4
멀시 금지	고전적, 설문대할망 , 거짓말을 잘 하는 변인태, 들음돌과 할망, 용왕을 욕한 강선장, 힘과 기예가 뛰어난 강씨, 송씨댁 장사며느리, 부래각	8	7.3
허욕 금지	팔용당과 팔사당, 탑지, 신선의 놀이터 백록담, 방선문과 선비, 인색 한 좌수, 고성목과 산방덕	6	5.5
은혜 베품	가령 양장의, 산호 해녀 , 한순이 달순이 신선달, 의녀 김만덕, 도적떼 를 살린 고흥방, 백중제	6	5.5
효도	수월봉과 녹고물, 천제연과 효자, 용궁올레와 칼선도리, 고성홍효자, 신촌 효부	5	4.6
명판관, 명인의업 적	제주의 고려장, 뱀을 죽여 없앤 서련, 구슬을 먹는 아이, 왕비의 병 을 고친 좌조의, 귀달린 뱀과 안판관	5	4.6
기지· 지혜	채뚝뚝이, 고부운, 기지가 뛰어난 현유학 훈장, 힘센할망과 피많은 하르방, 슬기로 나쁜풍속을 고치다	5	4.6
충성심	의리있는 개무덤(귀덕), 신도 충견 무덤, 개무덤(성읍), 여우잡은 개, 감목관 김씨	5	4.6
명당발복	산방산 이야기, 변씨 입도 선묘, 소잡아 얻은 밋자리, 여우혈, 은호골	5	4.6
기인의 행적	설문대 하르방, 괴법천충, 이좌수의 눈, 문곡성과 명인들	4	3.7
동물의 물락	아흔아홉골, 쇠섬과 뱀, 여우물	3	2.8
지성감천	용연과 고대정, 김명현 참판, 효자인 서자	3	2.8
기타	절부암, 산방산과 방철스님, 유반석 무반석, 천지연, 광정당과 이목 사, 매고 할망, 열녀 김천덕, 힘센 남매, 양선달, 오돌또기	10	9
계		109	100

(박재형, 1998: 20).

표에서 기울임으로 표시된 것은 본 연구에서 사전설문에 제시된 제주지역설화이며, 진
하게 표시된 것은 본 연구자가 최종 연구에서 활용하는 제주지역설화이다.

박재형(1998)은 제주 전래동화에서 민담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36편으로
전체의 19.7%의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민담의 수는 많으나 민담을 수용한 전래동화가
많지 않은 이유는 민담의 내용이 어린이의 정서와는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민담이 흥미 위주로 꾸며져 동심과 거리가 먼 주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애란(2009)도 지역설화들 중에서도 전설과 신화는 지역적 색채가 뚜렷하며, 특징지

역에서 구체적인 증거물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반면, 민담은 지역적 색채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구체적 증거물도 제시되지 못하고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널리 파생되기 때문에 굳이 지역 설화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주지역의 신화와 전설 작품 위주로 그 소재를 채택하였다.

가. 대별왕 소별왕(천지왕 본풀이)

하늘나라의 임금님인 천지왕은 세상에 해와 달이 들썩이나 떠 있어 걱정을 하던 중 기이한 꿈을 꾸고 나서 땅의 사람들 가운데 슬기롭고 어진 총명부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 형은 대별왕, 아우는 소별왕 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들은 일곱 살이 되던 해에 총명부인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다. 총명부인은 아들들에게 박씨를 건네주었고, 대별왕과 소별왕은 그 박씨의 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천지왕을 만났다. 아들을 만나게 된 천지왕은 기뻐하며 대별왕에게 이승을 다스리게 하고, 소별왕에게는 저승을 다스리게 했다. 소별왕은 자기가 이승을 다스리고 싶어 대별왕에게 내기를 제안하게 되는데, 내기를 할 때마다 대별왕이 이기자, 소별왕은 마지막 내기에서 거짓 피를 부려 결국 이승을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거짓으로 이승을 차지한 소별왕은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없었고 힘이 들었던 소별왕은 대별왕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대별왕은 세상에 두 개씩 떠 있는 해와 달을 활로 하나씩 쏘아 떨어뜨리고 사람과 짐승을, 귀신과 사람을 구분하였다. 이로써 이 세상은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으나 완전히 바로잡지는 못하였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서로 뒤엉켜 혼란스럽다고 한다(장수명, 2011).

〈천지왕 본풀이〉는 전래동화집에 소개되는 한국 신화 중에 드물게 등장하는 천지창조 신화이다. 이 본풀이는 함흥지역에서 큰굿을 할 때 부르는 무가인 〈創世歌〉와 비슷한데, 이 둘의 공통점은 우리나라의 천지개벽이 창조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천지왕 본풀이〉는 성서의 창세기처럼 해와 달, 별의 창조와 질서가 담겨 있어 제주 선인들의 세계관, 우주관을 엿볼 수 있다(박재형, 2015: 10).

나. 설문대할망

태초에 탐라에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센 설문대할망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누워서 자던 설문대할망이 벌떡 일어나 방귀를 끼었더니 천지가 창조되었고, 할망이 치마폭에 흙을 담아 날라 한라산이 만들어졌다. 할망은 몸속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풍요

로웠다. 탐라 백성들은 할망의 부드러운 살 위에 밭도 갈고 할망이 싸는 힘찬 오줌 줄기로 부터 온갖 해초, 문어, 전복과 같은 것들이 나와 바다가 풍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풍요로움의 근원인 설문대할망 자신에게는 속상한 점이 있었는데, 자신의 키가 너무 커서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항상 탐라백성들을 위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고 싶어 했고, 그러던 어느 날 탐라 백성들에게 자신의 속옷(치마) 한 벌만 만들어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할머니의 속옷을 만드는 데는 명주 100통이 필요했는데 탐라 백성들이 명주를 다 모아도 99통 밖에 안 되었다. 사람들은 명주의 모자람에 속이 상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고, 설문대할망은 미완성의 옷을 보고 화가 나서 육지까지 다리 놓는 걸 포기해 버리고, 슬픔에 빠진 설문대할망은 한라산 물장오리물에 빠져 그만 죽고 말았다(장영주, 2009).

다. 오백장군

설문대할망은 오백장군을 낳아 한라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식구는 많고 가난한데다 마침 흉년까지 겹쳐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머니는 500명의 아들들에게 밖으로 나가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고 그 동안 자기는 아들들에게 먹일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자기 몸보다 훨씬 큰 가마솥에 죽을 끓이던 설문대할망은 그만 발을 잘못 디디어 죽 속에 빠져 죽어 버렸다. 그런 줄도 모르고 오백형제들은 돌아와서 여느 때보다 맛있는 죽에 감탄하며 죽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돌아온 막내가 죽을 뜨려고 솥을 젖다가 이상한 뼈다귀를 발견했는데, 잘 살펴보니 어머니의 뼈가 틀림없었다. 막내는 어머니의 고기를 먹은 불효한 형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통탄하며 멀리 한경면 고산리 차귀섬으로 달려가 한 없이 울다가 그만 바위가 되어 버렸다. 이것을 본 형들도 그제야 사실을 알고 여기저기 나서서 한 없이 통곡하다가 모두 바위로 굳어졌다. 그래서 지금 영실에는 499의 기암 장군이 있고, 차귀섬에 막내 하나가 외롭게 있게 되었다(현용준, 1996: 44-45).

Ⅲ. 지도의 실제

1. 지도계획 수립

가. 실태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반영내용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S시 소재 S초등학교의 3학년 학급 1개 반 남학생 13명, 여학생 17명 총 30명을 기초 실태조사의 표본으로 삼았다.

Eisner, E. W.는 학습 활동을 조직할 때 그 활동이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인지,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관심에 근거한 활동인지를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시하여 이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학습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곧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다(황현하, 1999: 29).

따라서 본 연구자는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 및 재구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3학년 수준에 맞는 제주 설화와 교육과정 활동을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기초 실태 조사 결과 및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사전설문 문항1. 제주설화를 알게 된 경로 (N=30)

문항1	제주 설화를 알게 된 경로						
구분	① 가정	② 책	③ 친구	④ 학원	⑤ 기타		
					제주설화를 잘 모름	인터넷	견학
N	5	11	2	3	7	1	1
%	16.7	36.6	6.7	10	23.3	3.3	3.3

〈표 5〉 사전설문 문항2. 제주 설화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자유서술)

문항2	제주 설화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단어, 제목 등 자유서술)
응답 내용	설문대할망(4명), 외돌개, 천지연 폭포와 범섬, 김만덕, 용머리, 쇠소깍, 산방산, 이중섭, 콩쥐팥쥐, 김수로왕

학생 실태 조사 결과, 문항 1에서는 제주설화를 책으로 알게 된 학생이 36.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가정, 친구, 학원의 항목 순으로 알게 된 경로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제주설화를 접해보지 않아 제주설화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23.3%로 집계되어 제주지역설화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 하였다.

다음으로 문항 2에서 제주설화에 대해서 아는 내용을 작성해보라는 질문에 설문대할망이 겪었던 일 등 설화 내용을 요약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쓴 학생이 1명 있었던 반면에 사전설문 전 제주설화의 개념을 여러 번 설명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아예 하지 못한 학생도 26.6%에 달했고, 제주지역과는 거리가 먼 ‘김수로왕, 콩쥐팥쥐’ 등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분석하면 학생들이 제주 설화와 전래동화를 구분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담고 있는 전래동화의 존재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전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아래 표의 제주 설화들은 II장에 제시된 박재형(1998)의 제주 전래동화연구에서 구분, 주제 별로 활용하였고, 특히 아래의 박희순(2003)의 연구에 근거하여 연구자의 제주설화 작품 활용 기준을 마련하였다(박희순, 2003: 54).

석용원은 어린이들에게 읽힐 전래동화의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것, 둘째, 어린이의 눈으로 본 진실이 정형화 되고,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 셋째, 자연과 사회, 역사와 인간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고 현실을 보는 눈이 넓고 깊게 되는 것, 넷째, 어린이에게 생생한 영상을 그리게 하고, 창조력을 넓혀 주는 것, 다섯째, 휴머니즘과 비판 정신이 두드러진 것, 여섯째, 올바른 것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은 올바르다는 사실을 감동을 통해 포착시킬 수 있는 것, 일곱째, 우리의 말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주설화 작품 활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구비문학 연구자들의 연구내용 중 대표성이 드러난 작품
- 둘째, 학생들의 발달적 특성과 정서에 맞고 교육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
- 셋째, 신화와 전설 중심으로 구분과 주제의 다양성이 드러날 수 있는 작품
- 넷째, 제주인의 생활모습, 자연환경(유래, 근거지)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는 작품
- 다섯째, 시중에 있는 제주설화집(제주 전래동화집)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작품

〈표 6〉 사전설문 문항3-4.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제주 설화와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 제주 설화 (N=30)

문항 3-4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제주 설화와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5명 이상의 학생이 선택) 제주 설화(중복 응답 가능)				
설화 제목	조금이라도 알고 있음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 설화	설화 제목	조금이라도 알고 있음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 설화
설문대할망	17명	○	대별이 소별이 이야기	5명	○
삼성혈신화	2명		영등할망	6명	○
오백장군	6명	○	산방덕의 눈물	3명	
사만이	1명		오돌또기	3명	
오찰망	1명		수월봉과 녹고물	1명	
가문장아기	2명		백록담과 산방산	5명	○
자청비	3명		조왕할망	2명	
용두암	6명	○	초공과 유씨부인	0명	
의녀 김만덕	10명	○	산호해녀	3명	
이여도	4명		도채비 잠은 보말하르방	3명	

문항 3-4의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하면 표본의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설문대할망’ 설화는 이미 알고 있었고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 이야기로 응답했다. 또한, 평소 제주교육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김만덕 배려·나눔 교육을 통해 ‘의녀김만덕’ 설화를 알고 있는 학생도 33%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제주 자연 환경과 관련된 전설인 ‘오백장군, 백록담과 산방산, 용두암’ 설화를 알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제주의 당 신화로 알려지고 풍속과 관련된 ‘영등할망’ 설화에 대해서도 이름을 들어본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은 시중에 있는 전래동화집에서 접한 제주 설화, 제주 자연환경 및 지명과 관련된 제주 설화, 제주 전통 풍속과 관련 있어 주위 어른들에게 가끔씩 들어본 제주 설화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 설화를 잘 알고 있는 학생도 있었지만 위에 제시된 제주 설화 중에서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어 ‘알고 있음’ 표시란에 표시를 아예 하지 못한 학생도 18%에 달했다. 제주 설화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의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표 7〉 사전설문 문항5. 좋아하는 미술표현활동과 그 이유 (N=30)

문항5	좋아하는 미술표현활동과 그 이유				
미술표현활동	좋아함	비율 (%)	미술표현활동	좋아함	비율 (%)
소개하는 자료 꾸미기	2	6.6	수목화 기초 익히기	·	·
자연 느끼고 관찰하기	1	3.3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진 찍기	7	23.1
곤충 관찰, 특징 살려 일부분 그림 완성하기	·	·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음식, 전통의상 만들기	2	6.6
지점토로 동물 만들기	4	13.2	미술작품 감상하며 이야기 나누기	·	·
경험한 것 크레파스로 그리기	·	·	한복 디자인, 도자기 문양꾸미기	·	·
상상의 세계를 물감으로 표현하기	2	6.6	자신이 쓴 시와 어울리게 시화 그리기	·	·
나를 꾸미는 장식품 만들기	2	6.6	이야기를 꾸며 만화그리기	8	26.4
아름다운 우리고장 만들기	2	6.6			

○ 이야기를 꾸며 만화그리기 선택 이유: 만화그리기와 이야기 만들기가 재미있다.

○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진 찍기 선택 이유: 사진 찍기는 재미있고 쉬워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미술 수업에서 색다른 내용이어서, 내가 초능력자가 된 것 같아서

○ 지점토로 동물 만들기 선택 이유: 찰흙이나 지점토를 만지는 느낌이 좋아서,

○ 나를 꾸미는 장식품 만들기 선택 이유: 만들기도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장식품이 쓸모가 있고 예뻐서, 만들기가 제일 좋다.

○ 상상의 세계를 물감으로 표현하기 선택 이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계속 재미가 있고 질리지 않는다.

○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음식, 전통의상 만들기 선택 이유: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

○ 소개하는 자료 꾸미기 선택 이유: 다른 사람에게 잘 알릴 수 있어서 등.

문항 5의 ‘좋아하는 미술표현활동’은 본 연구자가 2016학년도 1학기에 미술 수업 한 표현활동과 2학기에 교육과정 상 가르쳐야 할 표현활동을 한데 묶어 정리하여 놓은 것이다. 이 질문에 학생들은 ‘이야기를 꾸며 만화그리기’ 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진 찍기’가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따랐다. 세 번째로 선호하는 활동은 ‘지점토로 동물 만들기’였다. 특히 ‘만화그리기’ 표현 활동은 학생들이 평소 만화 자체에 대한 흥미가 많은데 이를 직접 자신이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니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사진 찍기’활동은 학생들이 기존의 생각하던 미술표현활동인 그리기, 만들기가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태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반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미술표현활동 소재로 다룰 제주 설화는 ‘대별이 소별이 이야기, 설문대할망, 오백장군’으로 선정하였고, 미술표현활동방법으로 ‘이야기 내용을 상상하여 그림책으로 표현하기, 전통 옷, 장신구 만들기, 제주 전통 가옥 환경 꾸미기’를 구성하였다.

나. 단위 재구성

초등학교 3학년 ‘제주전통설화를 활용한 미술표현활동’ 단원을 재구성하여 이 내용을 <표 8>로 정리하여 보았다.

<표 8> 3학년 ‘제주전통설화를 활용한 미술표현활동’ 단위 재구성

학습주제	활용설화	학습내용	차시	관련 성취기준
이야기 내용을 상상하여 그림책으로 표현하기	대별이 소별이 이야기 (천지왕 본풀이)	제주 설화 대별이 소별이 이야기를 상상하여 그림책으로 표현한다. - 이야기 듣기 및 아이디어 구상하기 - 이야기 내용을 상상하여 그림책 만들기	기초 (4)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전통 옷, 장신구 만들기	설문대 할망	설문대할망의 옷(한복)과 장신구를 만들어 소 개한다. - 이야기 듣기 및 아이디어 구상하기 - 설문대할망 옷, 장신구 만들기	기초 (4)	자유로운 발상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기
제주 전통 가옥 환경 꾸미기	오백장군	오백장군의 집과 집 주변 환경을 만든다. - 이야기 듣기 및 아이디어 구상하기 - 제주 전통 가옥에 어울리는 생활도구, 가옥 환경의 특징을 생각하며 찰흙으로 집과 집 주변 환경 만들기	기초 (4)	주변 환경에서 조형요소와 원리를 탐색하기

미술표현활동에 중점을 두어 단원을 재구성 하였으므로 표현 영역에서는 다양한 자료와 방법을 활용한 발상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표현 동기를 높이고,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가 표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하였다. 또한 표현 활동을 계획 할 때에는 환경과 안전 문제를 고려하고, 표현 재료와 용구의 선택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지도를 사전에 충분히 하였다. 한편, 표현활동에 중점을 두어 재구성 하였으나 서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필수적으로 마련하여 표현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점검하고 다음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화를 미술교육의 접목시켜 지도하였으므로 미술과-국어과 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표현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 수업의 실제

연구자는 제주특별자치도내 S시 S초등학교 3학년 학급 1개 반 남학생 13명, 여학생 17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주간 총 12차시에 걸쳐 제주전통설화를 활용한 미술표현활동 수업을 진행하였다. 본 수업은 미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활용되는 설화와 수업 내용의 특성상 한 주당 하루를 선택하여 그 날에 3~4차시를 연속차시로 운영하여 설화를 듣는(보는) 활동과 미술표현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수업은 설화를 듣고 그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구성하였다.

가. 대별이 소별이(천지왕 본풀이) 설화를 활용한 수업의 실제

1) 교수·학습 과정안

단원		제주전통설화를 활용한 미술표현활동	관련 성취기준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학습 주제		대별이 소별이 이야기(천지왕 본풀이)를 상상하여 책으로 표현하기			
학습 목표		제주 설화 대별이 소별이 이야기를 상상하여 그림책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 습 단 계	학 습 과 정	교 수 · 학 습 활 동		차시	자료(▶)및 유의점(※)
도입	구상 하기	• 동기유발 - 대별이 소별이 그림책 맨 앞장을 보고 무슨 내용의 이야기 인지 상상하여 발표하기 • 학습목표 제시 및 활동 안내 • 이야기 듣기 및 아이디어 구상 - 대별이 소별이 이야기를 교사의 육성으로만 듣고 이야기의 장면을 상상하여 그림책에 그릴 내용 구상하기 - 아주 오랜 옛날 이 세상의 모습은 어땠을지 이야기 나누기		1	▶ 대별이 소별이 이야기 그림책 ▶ 실물화상기
전개	표현 하기	• 대별이 소별이 이야기 그림책 만들기 - 모둠 구성원들끼리 장면을 나누어 대별이 소별이 설화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 그린 장면을 모아 1 모둠당 1 그림책 만들기 - 활동 후 깨끗하게 주변 정리하기		2	▶ 채색도구 ※ 장면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모둠별 협동을 강조한다.
정리	감상 하기	• 작품 감상하기 - 친구들과 감상할 관점 이야기하기 - 작품 설명 및 친구 작품 감상하기 - 친구들의 작품을 자신이 그린 것과 비교감상하며 느낀 점 나누기		1	▶ 실물화상기 ※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친구의 작품을 긍정적으로 감

나. 설문대할망 설화를 활용한 수업의 실제

1) 교수·학습 과정안

단원		제주전통설화를 활용한 미술표현활동	관련 성취기준	자유로운 발상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기	
학습 주제		설문대할망 옷, 장신구 만들기			
학습 목표		설문대할망의 옷(한복)과 장신구를 만들어 소개할 수 있다.			
학 습 단 계	학 습 과 정	교 수 · 학 습 활 동		차시	자료(▶)및 유의점(※)
도입	구상 하기	• 동기유발 - 「설문대할망」 관련 O/X 몸풀기 퀴즈 풀기 - 1학기에 활동했던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 작품 살펴보기(영국, 몽골, 인도, 일본, 멕시코, 케냐, 독일 등) • 학습목표 제시 및 활동 안내 • 이야기 듣기 및 아이디어 구상 -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보고 설문대할망의 모습은 어땠는지 생각해보기 - 설문대할망에게 어울릴 옷과 장신구 모둠별로 구상하기		1	▶ 제주어로 살펴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동영상) ※ 동영상을 볼 때 제주어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교사가 보충 지도한다.
전개	표현 하기	• 설문대할망 옷, 장신구 만들기 - 만들기 재료는 수업 전에 미리 준비하기 - 모둠별로 역할을 나누고 재료의 특징을 살려 설문대할망 옷과 장신구 만들기 - 직접 만든 옷과 장신구는 직접 착용하여 패션쇼에서 소개할 내용 미리 준비하기 - 활동 후 깨끗하게 주변 정리하기		2	▶ 전지, 만들기 재료, 꾸미기 재료, 채색 도구
정리	감상 하기	• 작품 감상하기 - 친구들에게 자신의 모듬이 만든 작품 설명하기 - 만든 옷과 장신구는 직접 착용하고 패션쇼를 하며 학생들에게 특징 설명하기 - 친구들의 작품을 자신이 만든 것과 비교감상하며 느낀 점 나누기		1	※친구의 작품을 긍정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칭찬 스티커
	평가 정리 하기	• 평가 및 정리하기 - 설문대할망이 선택할 것 같은 옷과 장신구 뽑기 - 활동하고 나서의 느낀 점 발표하기			
평가		• 설문대할망의 모습과 표현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며 만들었는가? • 자신이 만든 장신구와 옷의 특징을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가?			

2) 활동 결과



본 연구에 도입된 표현활동 중 가장 학생들이 많이 웃으며 즐거워했던 활동으로, 학생들은 나뭇잎, 털실, 스티커, 골판지, 색테이프 등과 같은 다양한 재료로 설문대할망의 옷과 장신구를 만들었다. 또한 이를 직접 입어보고 패션쇼를 하였는데 마치 설화에 나오는 설문대할망처럼 큰 거인 할머니의 모습을 잘 흉내 내었다. 또한 비슷하게 목 부분, 치마 등을 표현했지만 모둠마다 의견이 달라서 그 디자인이 조금씩 달랐다. 학생들의 생각을 반영한 의상 및 장신구 디자인 활동이었다.

〈그림 2〉 학생작품, 전통 옷, 장신구 만들기

다. 오백장군 설화를 활용한 수업의 실제

1) 교수·학습 과정안

단원		제주전통설화를 활용한 미술표현활동	관련 성취기준	주변 환경에서 조형요소와 원리를 탐색하기	
학습 주제		오백장군에게 집 만들어주기			
학습 목표		제주의 전통 가옥 환경을 꾸밀 수 있다.			
학 습 단 계	학 습 과 정	교 수 · 학 습 활 동		차시	자료(▶)및 유의점(※)
도입	구상하기	• 동기유발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 가옥 환경 탐색하기 - 초가집, 돌하르방, 정낭, 전통음식과 조리도구, 물허벅, 재래식 변소에 대해 알아보기 • 학습목표 제시 및 활동 안내 • 이야기 듣기 및 아이디어 구상 - 오백장군 이야기를 만화영화로 살펴보기 - 가난한 살림으로 힘들었던 오백장군의 가족들에게 멋진 집을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것 생각해보기		1	▶ 오백장군 애니메이션(동영상) ※ 학생들의 상상력 유발을 위해서 대사가 없는 무성애니메이션으로 준비한다.

전개	표현하기	● 오백장군에게 집 만들어주기 - 제주 전통 가옥에 어울리는 생활도구, 가옥환경의 특징 생각해보기 (사회과 지역화교재 「살기좋은 우리고장」을 사진자료로 참고) - 모둠별로 협동하여 오백장군의 집에 들어가면 좋을 생활도구, 가옥환경을 찰흙으로 표현하기 - 제주의 돌, 나무, 동물의 특징을 질감으로 나타내기 - 활동 후 깨끗하게 주변 정리하기	2	▶ 찰흙, 찰흙판, 찰흙칼
정리	감상하기	● 작품 감상하기 - 친구들에게 자신의 모듬이 만든 작품 설명하기 - 작품 만든 것을 모아 큰 하나의 판에 어울리게 배치하기 - 친구들의 작품을 자신이 만든 것과 비교감상하며 느낀 점 나누기	1	▶ 우드락 ※ 제주 전통문화의 멋과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평가정리하기	● 평가 및 정리하기 - 활동하고 나서는 느낀 점 발표하기 - 제주의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태도 지니기		
평가	● 찰흙의 성질을 활용하여 만들고자 하는 주제와 어울리게 만들었는가? ● 제주의 전통문화를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는가?			

2) 활동 결과



학생들의 표현의 몰입도가 가장 높았던 활동으로, 학생들은 찰흙을 주무르면서 찰흙의 특징을 느끼고 이에 맞게 표현하였는데, 찰흙으로 표현한 정낭의 나무가 덜 휘어지도록 이쑤시개를 찰흙 중간에 끼워 넣는 등 표현 능력의 향상이 있었다. 또한 사회과 지역화교과서 「살기좋은 우리고장」을 사진자료로 참고하게 하였는데, 이는 미술과와 사회과의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학생작품, 제주 전통가옥 환경 꾸미기

3. 결과 분석

제주의 전통설화를 활용한 미술표현활동을 도입 한 후 약 1개월 뒤 학생들의 수업의 교육적 효과와 수업활동의 흥미와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6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미술을 가르치는 3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이 설

문 결과를 전체 초등학교 수준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사후설문 문항 1. 제주 설화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자유 서술)

문항1	제주 설화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단어, 제목 등 자유 서술)
	설문대할망(26명), 대별이 소별이(5명), 오백장군(3명)

사전 설문에서는 ‘외돌개, 천지연 폭포와 범섬, 김만덕, 용머리, 산방산’ 과 같은 제주의 전설과 관련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대답이 주로 나왔으나, 수업 활동을 하고 난 뒤에 대답 내용으로, 미술표현 활동에서 활용해서 공부했던 설화 이름이나 설화의 내용을 주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설문에서 4명의 학생들이 ‘설문대할망’ 설화에 대해서 썼었는데 이번 설문에서는 무려 그 수의 6배 이상의 학생들이 ‘설문대할망’에 대해 응답할 수 있었다. ‘설문대할망’ 설화 이외에도 ‘대별이소별이’, ‘삼성혈 신화’, ‘오백장군’ 설화를 자유롭게 서술하였으며, 이전과 같이 ‘콩쥐팍쥐, 김수로왕’ 등의 제주설화에 대한 오개념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표 10〉 사후설문 문항 2. 내용을 잘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려줄 수 있는 설화 (N=30)

문항2	내용을 잘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려줄 수 있는 설화 (중복 응답 가능)			
구분	대별이 소별이	설문대할망	오백장군	합 계
N	18	26	23	67
%	59.4	85.8	75.9	221.1

문항 2의 질문 내용은 학생들이 설화 내용을 전부 이해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시 말해서 설화 내용 이해도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문항에서는 문항 내용의 특성상 중복 응답이 가능하게 하였는데, 이에 대해 67명의 학생이 이번 수업 활동에서 배웠던 설화를 다른 이에게 들려줄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설문대할망, 오백장군’ 설화에 대해서는 3분의 2이상의 학생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표 11〉 사후설문 문항 3. 가장 재미있었던 설화 (N=30)

문항3	가장 재미있었던 설화		
구분	대별이 소별이	설문대할망	오백장군
N	2	11	7
%	6.6	36.3	23.1

가장 재미있었던 설화로 ‘설문대할망’, 그 다음으로는 ‘오백장군’, ‘대별이 소별이’로 응답률이 나타났다. 설화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위 3가지의 설화는 공통 점으로서 그 주인공들이 인간과 비슷한 감정과 행동을 하지만, 일반 인간과는 다른 비범한 능력을 가졌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주인공들이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한 차례 이상 겪었다는 점이다.

〈표 12〉 사후설문 문항 4. 제주설화를 활용한 미술표현활동 중 가장 좋았던 활동과 그 이유 (N=30)

문항4	제주설화를 활용한 미술표현활동 중 가장 좋았던 활동과 그 이유		
	활동 내용	N	%
	이야기 내용을 상상하여 그림책으로 표현하기(대별이 소별이)	2	6.6
	전통 옷, 장신구 만들기(설문대할망)	13	42.9
	제주 전통가옥 환경 꾸미기(오백장군)	5	16.5
○ 전통 옷, 장신구 만들기(설문대할망) 선택 이유: 옷을 직접 만들어 입어보고 직접 설문대할망처럼 행동을 해서 내가 설문대할망 같았다. 옷 만드는 활동이 재미있었다. ○ 제주 전통가옥 환경 꾸미기(오백장군) 선택 이유: 찰흙으로 빚어서 만드니까 재미있었다. ○ 이야기 내용을 상상하여 그림책으로 표현하기(대별이 소별이) 선택 이유: 직접 이야기책을 만든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제주설화를 활용한 미술표현활동 중 가장 좋았던 활동과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40% 이상의 학생들이 ‘전통 옷, 장신구 만들기’를 골랐다. 그 이유는 ‘직접 설화의 주인공 처럼 큰 옷을 만들어 입어보고 설문대할망처럼 행동할 수 있어서’ 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술 표현활동에서 자신의 몸을 직접 활용하는 활동과 자신의 작품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위로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좋아한 활동인 ‘찰흙으로 제주 전통가옥 환경 꾸미기’는 학생들이 평소 찰흙과 지점토를 주무르고 두드리면서 하는 촉감, 물성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

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평소 자신의 주변에서 봤던 제주 전통 문화가 담긴 것들을 학생 자신의 손으로 직접 표현해보았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3〉 사후설문 문항 5. 제주설화를 활용한 미술표현활동 학생 만족도 (N=30)

문항5	제주설화를 활용한 미술표현활동 학생 만족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N	26	4	·	·	·
%	86.6	13.3	·	·	·

본 연구 주제인 ‘제주설화를 활용한 미술표현활동’에 대한 학생 만족도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표현활동 수업에 매우 만족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85% 이상이었고, 만족한다는 의견까지 합하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본 수업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4〉 사후설문 문항 6. 제주설화를 활용한 미술표현활동을 하고 나서의 느낀 점(자유서술)

문항6	제주설화를 활용한 미술표현활동 하고 나서의 느낀 점(자유 서술)
	· 제주전통설화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 선생님과 함께하니 더 재미있었고 설화 이야기가 처음엔 어려웠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좋았다. 설화 이야기를 듣고 미술 활동을 하니 미술시간이 더 재미있었다. · 만들기도 하고, 재미있는 설화도 들으니까 재미있다. · 설문대할망 옷도 만들고 사진도 찍어서 다음엔 한 번 더 하고 싶다. · 예전에는 몰랐던 제주설화를 알게 되어 좋다. 앞으로 다른 지역의 설화도 더 알고 싶다. 등

본 수업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서술하라는 문항 6에 대하여 학생들은 문항 5에서처럼 긍정적인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먼저, 본 수업에서 활용한 제주전통설화에 대하여 많은 지식과 흥미를 얻게 되었음을 느꼈던 의견이 많았다. 또한 미술표현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의 표현활동을 할 수 있었고, 특히 만들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단원 재구성 시 학생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동을 통한 표현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둠활동을 도입하였는데, 표현활동을 하며 협동이 잘 이루어졌음을 느끼고 있는 학생도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 전통설화를 소재로 하여 초등학교 3학년 미술교육과정의 표현활동 단원을 재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제주 지역의 풍토적·역사적 상황 속에서 독특하게 형성되어 온 제주지역 설화를 활용한 미술 수업은 학생들에게 설화 자체의 교육적 가치 이외에도 제주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 제주 도민이라는 자긍심을 기를 수 있게 하는데, 이는 미술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하나의 예시로서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초등 미술과 교육과정과 제주지역 설화에 관한 문헌 및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고, 사전 설문 및 실태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흥미와 특성에 적합한 학습요소를 추출하고 이와 연계한 표현활동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제주전통설화를 활용한 미술표현활동' 단원은 총 12차시 분량으로, 연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S시 S초등학교 3학년 30명 학생을 대상으로 3주간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활동 이후, 학생들의 수업의 교육적 효과와 수업활동의 흥미와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사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학생들이 제주지역 설화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과 흥미를 갖게 되었다.
- 둘째, 제주지역 설화를 듣고 이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주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깊은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 셋째,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결과, 보다 다양한 미술표현활동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미술시간이 항상 새롭고, 재미있으면서도 놀라운 느낌을 주는 미술수업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 넷째, 모둠중심의 미술표현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친구에게 이야기 하면서 소통하고, 역할을 배려하며 분배하고, 서로 협동하는 자세를 키울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에 의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초등학교 3학년 30명으로 한정하였고, 연구의 소재로 활용된 제주지역 설화의 수가 3개로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일반화를 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을 다양화함은 물론 미술수업에 활용되는 제주지역설화의 소재도 다양성과 대표성을 지

닌 것들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3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흥미도, 표현활동 결과로 향상된 창의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와 더불어 양적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셋째, 학생들에게 미술표현활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교사는 주제표현, 표현 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습 능력을 충분히 기르고 난 뒤에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 2017년 4월 25일 / 논문심사 2017년 5월 5일 / 게재승인 2017년 5월 15일

KCI

【참고문헌】

- 강문희, 이혜상(2008). 아동 문학 교육. 서울: 학지사.
- 고희주(2003). 제주설화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문학교과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경애(2013). 제주설화를 활용한 초등 국어과 통합 지도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범재(2004). 설화의 교육적 응용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5·6학년을 중심으로. 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열규 외(1982). 민담학개론. 서울: 일조각.
- 김윤희(2000). 구전문학-조선의 민속전통. 서울: 대산출판사.
- 김정숙(2002). 자청비·가문장아기·백주또: 제주섬, 신화 그리고 여성. 제주: 도서출판 각.
- 모봉구(2006). 설화의 재발견. 서울: 눈과마음.
- 문해란(2005).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설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머리 아홉 달린 괴물, 박제상 이야기,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재형(1998). 제주 전래동화 연구: 제주 설화의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재형(2015). 어린이가 읽는 제주신화이야기(1). 제주교육박물관.
- 박현국(1995). 한국공간설화연구. 서울: 삼문인쇄사.
- 박희순(2003). 교육연구 방법을 통한 제주설화의 교재화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신정순(2002).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설화교육 방법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신헌재 외(2007). 아동 문학과 교육. 서울: 박이정.
- 장덕순 외(1971). 구비문학개설. 서울: 일조각.
- 장수명(2011). 대별이 소별이 이야기: 제주설화. 제주문화예술재단.
- 장영주(2009). 설문대할망: 탐라 창조여신. 서울: 글사랑.
- 정애란(2009). 초등학교 국어과 지역화 교과서 개발 방안: 〈부산 지역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제주문화예술재단(2010). 제주설화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제주문화예술재단.
- 최 미(2005). 전래동화의 삽화를 활용한 초등학생의 창의적 표현력 신장 방안.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운식(2002). 설화·고소설 교육론. 민속원.
- 현용준(1996). 제주도전설. 서울: 서문당.
- 황현하(1999). 주제 통합적 접근에 의한 열린 미술 교육 적용 방안: 초등학교 6학년 미술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Abstract】

A Case Study on Localization of Art Expression Activity: Focusing on the folk tales in Jeju area

Hur, Eun-Gyeong

(Jeju Saeseogwi elementary school)

Oh, Jae-Hoan

(Jeju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the current curriculum emphasizing the localization of curriculum, this study was introduced to the folk-tales of Jeju area which are worthy and introduced into the curriculum of the arts curriculum and reconstructed as a unit of expression activities. In addition, 12 classes were taught to 30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province with the reconstructed contents. The contents of the lesson using Jeju folk -tales are 'Expressing the story contents as picture books', 'Making traditional clothes and ornaments', 'Decorating Jeju traditional house environment'.

The educational effects expect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have interest and interest in the folk-tales in Jeju and have a desire to love and preserve Jeju traditional culture.

Second, through the art class using familiar 'story' materials to students of 'Jeju folk-tale', students experience various artistic expressive activities to create an atmosphere where students can freely express their thoughts and feelings.

Third, students should be able to express basic materials, tools, expression methods, formative elements and principles by reconstructing them into expression activities appropriate to the third grade curriculum.

Fourth, by reorganizing the class so that students can cooperate with each

other by expressing them in a cooperative manner, it is possible to raise individual sense of responsibility, to interact positively with friends, and to feel the value of cooperation.

Key word: folk-tales in Jeju, artistic expression activities, reconstruction of curriculum

K C I

KCS I